



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정부는 2011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 ‘201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’라는 책자를 발간함.

● 정부는 각 부처 등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중 하반기 변경 및 개선이 예정되어 있는 177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, 이 중 금융산업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음.

■ 금융산업과 관련하여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으로는 대출금 자동이체 개선, 금융회사 자동응답서비스(ARS) 개선, 주식워런트증권(ELW)* 기본예탁금제도 도입, 보이스피싱(전화금융사기)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등이 있음.

● 계좌잔액이 부족하여 전체 출금예정금액이 대출 연체금액으로 계상되는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7월부터 자동이체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에도 부분출금 및 이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약관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함.

● 금융회사의 자동응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해당 서비스의 연결속도가 느린 경우 상담원이 이용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하도록 하는 콜백(Call Back) 서비스를 도입함.

● 한국거래소는 위험감수 능력을 가진 투자자만이 주식워런트증권(ELW) 거래가 가능하도록 8월부터 주식워런트증권 기본예탁금제도를 도입함.

- 주식워런트증권 거래를 위해서는 주식워런트증권계좌에 1,5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이 있어야 하며, 신규 개설자는 8월 1일부터, 기존 투자자는 10월 4일부터 거래가 가능함.

●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법령 마련으로 10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더욱 쉽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며, 외국 자산운용사의 상품으로 한정되어 있던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도 추진됨.

* 주식워런트증권이란 대상물인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시점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유가증권으로 고위험 파생상품임.

(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, 기재부, 6/30)